문제 1

1. **“이러한 행위는 인공미를 만들어내어 겉으로 보기에는 매화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나 이는 매화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된다.** 정말 perfect한 서술입니다,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 (가)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긍정한다. 라고 서술하는데 이러한 서술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의미죠? 하지만 (가)에서는 인공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부정했지만 인위적인 행위가 아름다움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! 따라서 아주 좋은 서술입니다.

2. **“제시문 (다)는 인공적인 것이 자연스러움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제시문에 비해 더 강력하게 인공미를 중요시한다. ”** 이 문장도 참 맘에드네요, 제시문 (나)와 같이 인공미를 인정하지만, 전제가 된다는 점으로 제시문 (나)와는 다르게 긍정한다.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. 정말 잘하시네요.

3. 완벽한 답안입니다. 합격 수준에서도 최상위 권이라고 보여지는 문제1 답안입니다.

문제 2

1. 이 문제는 1번 답안과 달리 큰 문제가 있네요, 합격여부를 떠나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안 서술입니다.

2. 많은 문제에서 ‘A의 관점으로 B를 해석하시오’ 라는 발문을 보셧을 겁니다.

여기선 ‘여러가지 관점에서 (라)를 해석하시오’ , ‘(라)를 통해 (가)를 해석하시오’ 두 발문이 섞였는데요, (라)의 내용은 주체적이지 못합니다. 오직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만 이해되야 해요. 근데 여기서 ‘여러가지’ 관점은 정말 외부적 관점이 아니라! (가) (나) (다) 일 수밖에 없습니다. 즉 (가)를 통한 (라), (나)를 통한 (라), (다)를 통한 (라)로 다시 (가)를 보는 결론적으로 (가)-(가), (나)-(가), (다)-(가)입니다. (가)-(가)는 (가)속에 두 논지가 있으니 인문화가의 입장에서 주제를 까주면 되구요.

발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답안 작성으로, 내용상 첨삭보다 형식적으로 발문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첨삭해드렸어요 ! :)